

유태명 동구청장 공동회장단회의 참석



유태명 동구청장은 31일 오후 4시 평택항만공사 마린센터 9층에서 열리는 '민선5기 2차년도 제2차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단회의'에 참석한다.

유 청장을 비롯한 공동회장단들은 이날 회의에서 '기능직 일반직 전환 특별임용 기회 확대', '저소득 주민 등에 대한 국기보급', '중앙정부 정책건의사항' 등 차지단체 현안문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황학주 시인 '문학청춘 작품상'



광주 출신 황학주(57) 시인이 계간 '문학청춘'이 제정한 '제1회 문학청춘 작품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수상작은 시 '협재'.

1987년 시집 '사람'으로 등단한 황 시인은 '자녀의 연인들', '노랑꼬리 연' 등의 시집과 장편 소설 '세가지 사랑', 예세이집 '당신, 이라는 여행' 등을 출간했다. '서울문학대상', '서정시학 작품상' 등을 수상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이강호 농산물품질관리사 지회장 취임



이강호 조선대 평생교육원 김 친전문과 과정 전담교수가 다음 달 3일 (사)한국 농산물품질관리사 광주·전남지회 제4대 지회장에 취임한다. 이 교수는 (사) 한국김치협회 광주지부 사무국장, (사)광주김치협회 명품김치 사업단 총괄·기획 국장 등을 맡고 있다.

영암 출신 하춘화 기찬장터 방문



가수 하춘화씨가 지난 29일 주석을 맞아 고향인 영암을 찾았다. 하씨는 지역 농·특산물을 전시·판매하고 있는 기찬장터를 찾아 농민들을 격려하고 김일태 영암군수에게 영암 친환경특산 품의 종류와 전국 10대 브랜드에 선정된 달마지쌀 골드의 인기비결 등을 들었다.

하씨는 "내 고향에서 나오는 농특산물을 누구보다 먼저 전국에 알리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이상희기자 lsh@

안성기 '350 캠페인' 라디오광고로 기부



환경재단은 이산화탄소 농도 감축 운동인 '350 캠페인' 라디오 광고에 출연한 배우 안성기 씨가 출연료 전액을 기부했다고 30일 밝혔다.

안성기 씨는 지난 2007년에도 'STOP CO2' 라디오 광고 출연료 전액을 기부한 바 있다. '350 캠페인'은 이산화탄소 농도를 350ppm으로 낮추고자 세계 188개국이 추진하는 국제 기후변화 캠페인이다. /연합뉴스

인사

◆매일신문

▲판매부장 고상규 ▲전단사업본부장 김병필

▲유통사업부장 정석희 ▲문화사업부장 박철웅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28 FAX. 062-222-4938, 222-4918

화족

▲김재원(창평컨트리클럽 상무이사)·김인숙씨 장남·준성군 김용만·김미숙씨 3녀 금령양=9월 4일(일) 오후 1시20분 수아비스 웨딩컨벤션 1층(서구 광천동) 로즈홀.

동창·동문회

▲오목회(회장 정병석) 모임=9월 5일 오후 6시 30분 금강산식당 062-224-0808.

종친회

▲광산이씨 상서공파 필문회(회장 이태교) 월례회 및 교양강좌=9월 2일(금) 오후 6시 30분 회랑궁회관 062-224-1800.

휴가 반납한 광주FC 아름다운 선행

장애인 어울림 체육캠프서 일일 강사

30일 나주 중흥골드스파 운동장에서 열린 광주 하계 장애인 어울림체육캠프에 특별한 손님이 찾았다.

광주월드컵 경기장을 누리는 광주FC의 수문장 박호진을 비롯해 이승기, 박병주, 주양파울로, 윤광복, 박요한, 윤민호 등이 축구 교실 일일 강사로 참여한 것이다.

어울림체육캠프는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주관으로 열린 행사로 장애인 가족 300여명이 참가했다. 29일 해양레포츠 체험 행사와 캠프 파이어 등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참가자들은 30일 푸른 잔디 위에서 공을 치며 1박2일의 일정을 마무리 했다.

광주 선수단은 달콤한 휴식을 뒤로하고 나주까지 달려와 이를

의 즐거운 축제에 함께했다.

지난 27일 제주와의 홈경기를 치렀던 선수들에게는 30일까지 휴가가 주어졌다. 이날 6명의 선수는 휴가까지 반납하고 일일 강사를 자처했다.

축구 교실은 선수들의 개인기 시범과 함께 막이 올랐다. 처음에는 긴장한 선수들의 엉뚱한 실수가 나오기도 했지만 이내 선수들은 화려한 드리블과 멋진 킥을 선보이며 참가자들의 박수 갈채를 받았다.

개인기로 몸을 푼 선수들은 각각 조를 나눠 강사로 변신했다. 공을 차는 기본 요령을 설명한 선수들은 참가자들과 1대1 패스, 스포팅 연습 등을 하면서 구슬땀을 흘렸다. 골 넣기 대회도 진행되면서 경



기장에는 웃음꽃이 만발했다.

맡은 통하지 않았지만 외국인 선수 주양파울로로 환한 미소와

큰 박수로 참가자들을 독려하면서 일일 강사의 임무를 완벽하게 소화했다. 축구공을 통해서 선수들과 참가자들은 언어와 신체의 장애벽을 넘은 것이다.

공격수 주양파울로는 "브라질에 있을 때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 적이 있다. 축구를 통해 한국의 아이들을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다.

다정다감한 지도로 눈길을 끈 수비 박병주도 "평소에는 해볼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이라서 기쁜 마음으로 이곳을 찾았다. 아이들이 잘 때려줘서 즐겁고 특별한 시간을 보냈다"고 참가 소감을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간 이식 환자에 감동한 간병인 성금 전달



생면부지 어린이에게 간 이식을 해준 환자의 간병인이 자신의 환자를 위해 성금을 모아 전해줘 잔잔한 감동을 불러오고 있다.

30일 조선대병원에 따르면 간병인 김미지(56·사진 왼쪽) 씨는 지난 25일 자신이 보살피고 있는 환자 최명숙(51)씨의 병원비에 써달라며 성금 33만 2000원을 병원 층에 전달했다.

최명숙씨는 지난 13일 선천성 간 질환을 앓던 정기남(7)군에게 자신의 간을 이식해 준 주인공이다.

김씨는 "도움이 되지 못하는 적은 몇인데도 너구리고마워하는 죄송하게 도리어 내가 더 고마웠다"고 말했다. /체희증기자 chae@

동신대 조민진씨 전남 첫 여성 ROTC



전남 최초이자 유일한 여성 ROTC(학군사관후보생)가 탄생했다.

동신대 언어치료학과 2학년에 재학중인 조민진씨는 올해 처음 자유 경쟁을 통해 선발한 여성 ROTC 220명 가운데 전남에서 유일하게 학과의 영예를 안았다.

"중·고등학생 때부터 질서 있는 생활에 매력을 느껴 막연하게 여군을 꿈꿔왔는데 학군사관후보생으로 학과에 대해 돼 정말 기쁘다"는 조

씨는 "대한민국 국토민으로 태어나 국가를 위해 직접적으로 봉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뿌듯하다"고 말했다.

유일한 흥일점으로서 남학생들과 함께 훈련을 받게 된다는 점에 대해

서도 "평소에 아버지나 남동생이랑 친밀하게 지내왔기 때문에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면서 "내가 전남 지역 제1호 여성 ROTC인 만큼 더욱 책임감을 갖고 남들보다 두 배, 세 배 더 노력해 훈련과 학과 공부 모두 잘 해내겠디"고 밝혔다.

한편 동신대는 더 많은 여성 후보생이 학과에 입학해 군을 이끌어갈 전문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장학금 지급, 기숙사 제공, 해외 군사문화 탐방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시행할 계획이다. /체희증기자 chae@

하버드대 한국학연구소장에 김선주 교수



한국인 최초

"전통적으로 미국 인문·사회과학 연구의 메카인 하버드대학에서 한국 학의 기반확보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미국 하버드대학 한국학연구소장에 지난 달 취임한 김선주 교수는 29일 연합 뉴스와의 통화에서 미국에서의 한국학 연구 수준을 질적으로 한단계 발전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하버드대학 한국학연구소는 미국은 물론 서구권에 설립된 최초의 한국학만을 연구하는 기관으로 1981년 설립됐다.

김 소장은 "하버드 대학 내의 다

른 단과대학 및 전문대학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한국학 연구와 교육 강화를 위해 힘쓸 생각"이라면서 "기존의 한국학 프로그램을 발전시키면서도 새로운 분야를 발굴하는 것이 임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학생들의 관심이 많은 정치학이나 사회학에 한국학 교수를 임용할 수 있도록 학교 당국과 접촉 중이고, 아직 한국학 분야로 소개되지 않은 분야의 발전에도 눈을 돌릴 방침이다. /연합뉴스

조선대 치과병원·치의학대학원 진료봉사



조선대학교 치과병원 원·치의학전문대학원 카톨릭 학생회(지도교수 김동기·손미경)가 최근 이를 동안 제54 차 하계 진료봉사를 다녀왔다.

조선대 치과병원과 치의학전문대학원 카톨릭 학생회 졸업 동문 그리고 교육문화재단의 후원으로 실시된 이번 진료봉사는 손미경 교수를 단장으로 전공의 5명(이준우·조현준·장승기·이성석·송미연), 학생 45명(회장 최지웅)이 참여해 목포 명도복지관에서 진료봉사를 실시했다. 이날 봉사단은 진료봉사를 통해 총 150여명의 환자에게 구강보건교육을 비롯해 스케일링, 충치치료, 발치 등의 치과치료를 실시했다. /체희증기자 chae@kwangju.co.kr

곡성군-밝은안과21-희망병원 업무 협약



곡성군(군수 하남석·사진 가운데)과 밝은안과21병원(원장 윤길중·오른쪽), 희망병원(원장 손용일)은 지난 29일 의료봉사 정기 실시를 주 내용으로 하는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곡성군 제공>

광주시 광주천·용봉천 정화활동



광주시는 지난 29일 광주천 함께 가꾸기 참여 단체, 1사1하천사업 참여업체 등 86개 단체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영산강 상·하류, 광주천, 용봉천에서 하천 정화활동을 펼쳤다.

<광주시 제공>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28 FAX. 062-222-4938, 222-4918

화족

▲김재원(창평컨트리클럽 상무이사)·김인숙씨 장남·준성군 김용만·

김미숙씨 3녀 금령양=9월 4일(일)

오후 1시20분 수아비스 웨딩컨벤션

1층(서구 광천동) 로즈홀.

동창·동문회

▲오목회(회장 정병석) 모임=9월

5일 오후 6시 30분 금강산식당 062-

224-0808.

종친회

▲광산이씨 상서공파 필문회(회

장 이태교) 월례회 및 교양강좌=9

월 2일(금) 오후 6시 30분 회랑궁회

관 062-224-1800.

알림

▲프로네 학습증진컨설팅 저소득

층지녀 무료상담=학교부적응, 상

적부진, 성적저하, 교우관계, 정서장

애, 게임중독. 010-6392-7137.

▲지적장애인 성인 주·야간보호

서비스 실시=월~금 오후 5시~9

시 사랑모아 주간보호센터 062-

385-0422.